

# 한국어교육 연구

Journal of Teaching Korean as a L2

2009년 제4호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 용법 비교

發想 혹은 表現과 韓國語 教育 - 韓·日語의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대우표현과 대우법 - 몇 가지 시각

높임법 특수 어휘의 용법과 사전 기술

상대경어법 교육에서의 몇 가지 문제

일본어 교육에서의 경어표현 교수법 - '문맥화' 지도의 의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높임법 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화

Japanese and Korean Passives from a Generative Point of View

現代韓國語における聽者待遇法の体系と機能

발표 담화에 나타난 일본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대우법 실현 양상

우메다 히로유키

박갑수

노마 히데키

서상규

오고시 나오키

가와구치 요시카즈

김재욱

오구리 아키라

와다 마나부

정상희

이정란



Volume 4, February, 2009

## Journal of Teaching Korean as a L2

### **Comparison of the honorific usag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 Hiroyuki Umeda (Reitaku University)

発想あるいは表現と韓国語教育 - 日本語と韓国語の対照分析を中心として  
・ 朴甲洙 (ソウル大学名誉教授)

待遇表現と待遇法—いくつかの視角

・ 野間秀樹 (東京外国語大学)

### **The Usage of Korean special honorific words and its Descriptions**

・ Seo, Sang kyu (Yonsei University)

### **Various Issues Concerning Education of Relative Honorific**

・ Naoki Ogoshi (The University of Tokyo)

日本語教育における敬語表現の教授法 - 「文脈化」指導の現代的意義—  
・ 川口義一 (早稲田大学)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onorific system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Kim, Jae-woo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n Japan : past, present, and future**

・ 小栗 章 (The Japan Forum)

### **Japanese and Korean Passives from a Generative Point of View**

・ Manabu Wada (Yamaguchi University)

現代韓国語における聴者待遇法の体系と機能 - 格式体と非格式体を中心に—

・ 鄭相熙 (Reitaku University)

### **A honorific Forms in Oral Presentation in Korean by Japa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 Jungran Lee (Ewha Womens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Teaching Korean as a L2  
PAICHAJ UNIVERSITY

₩ 13,000

##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삼형(한양대)
편집위원	김기식(상해외대)
	박동호(경희대)
	박석준(배재대)
	송준호(우석대)
	심혜명(배재대)
	오대환(시마네현립대)
	정명숙(부산외대)
	지현숙(배재대)

## 한국어교육 연구 제4호

Journal of Teaching Korean as a L2 Vol 4

2009년 2월 20일 인쇄

2009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 최경순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펴낸이 | 박영호

펴낸곳 | 도서출판 하우

등록번호 | 제2-1307호

도서출판 夏雨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64-18 1층

Tel : (02)922-7090 | Fax : (02)922-7092

www.hawoo.co.kr | e-mail : hawoo4418@hotmail.com

ISSN 1975-4582

이 학술지는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교육 연구 제4호 (57p~104p)

**Journal of Teaching Korean as a L2**

Volume 4, February, 2009

# 대우표현과 대우법

## - 몇 가지 시각

노마 히데키  
(일본 동경외국어대학)

# 대우표현과 대우법 - 몇 가지 시각

노마 히데키  
(일본 동경외국어대학)

## 차례

1. 들어가며 - 본고의 목적과 구성
2. 대우법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한 체계
  - 2.1. Холодович(1954)
  - 2.2. 河野六郎[고노 로쿠로](1955;1979)
  - 2.3. 梅田博之[우메다 히로유키](1976,1985)
  - 2.4. 남기심 · 고영근(1985;1997)
  - 2.5. 菅野裕臣[간노 히로오미](1988;1991)
  - 2.6. 그 밖의 논고
3. 대우표현과 대우법을 보는 시각
  - 3.1. 언어존재론적인 시각 - 언어장을 둘러싸고
  - 3.2. 대우표현을 보는 시각
    - 3.2.1.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  
〈입말체=회화체〉와 〈글말체=문장체〉
    - 3.2.2. 〈서울방언〉 - 〈서울말〉의 변용
    - 3.2.3. 〈서울방언〉과 〈표준어〉
    - 3.2.4. 대우법에 있어서 〈입말체〉와 〈글말체〉
    - 3.2.5. 서울방언 대우법의 패러다임
    - 3.2.6. 사회방언과 〈의사회화체〉[擬似會話體]
    - 3.2.7. 서울방언 스피치 레벨(speech level)의 양극분해  
- 경의체[敬意體]와 비경의체[非敬意體]
    - 3.2.8. 대우법을 서법(mood)별로 본다

- 대우법의 비수평성[非水平性]
- 3.2.9. 스피치 레벨의 명칭
- 4. 대우법 연구의 재조명
  - 4.1.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준별
  - 4.2. <언어장>론에서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장면에서
    - 4.2.1. 말은 화자가 선택한다
    - 4.2.2. <말해진 언어>에서의 복수 청자와 <동석 구조>[同席構造]
    - 4.2.3. <동석 구조>로서의 <쓰여진 언어>와 <의사회화체>
  - 4.3. 서법별 기술
    - 4.3.1. 권유법
    - 4.3.2. 체험법 (회상법, 목적법, 보고법)
  - 4.4. <한다>체를 둘러싸고
  - 4.5. 비경의체의 기본적인 문체로서의<해>체
  - 4.6. 스피치레벨 시프트(speech level shift)와 비술어문의 대우기능
  - 4.7. 공손화 표지<-요/-이요>
  - 4.8. 인터넷 언어<하삼>체, <하셈>체와 사회방언
- 5. 마무리

## 1. 들어가며 - 본고의 목적과 구성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대우표현과 대우법을 둘러싼 원리론을 확인하고 대우법 체계와 관련된 제문제를 근년에 행해진 연구를 통해 비취보는 데에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한 대우법 체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a)에서 제기된 내용을 Noma(2005),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6), 野間秀樹[노마 히데키](2007, 2008abc)의 시점에서 재구성하여 근년에 거론되고 있는 제문제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2. 대우법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한 체계

기존의 연구에서는 논자의 수만큼 대우법 체계의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체계가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견해를 확인해 두자.

### 2.1. Холодович(1954)

러시아의 언어학자 홀로도비치(A. A. Холодович)가 기술하고 있는 언어는, 다루어진 예들을 보았을 때 반드시 서울방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선구적인 문법서이므로 간단히 확인해 두자. 서법별로 구별해서 기술하고 있다. Холодович(1954:122)에서는 “중립-직설법”(nejtral’no-iz’javitel’noe naklonenie)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계칭”이라고 번역한 용어는 “orientacija”이며 영어의 “orientation”에 해당되는 단어이다. 즉 “방향 짓기”나 “방향 매김”, “지향”, 바로 <누가 누구에게>라는 방향을 정립시키는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계칭 서술어 형식	I	II	III	IV	V
평서	브니다 (습니다) 아요/어요	오(소)	네	다	아/어
의문	브니까 (습니까) 아요/어요	오(소)	는가, 나	니, 느냐	아/어

## 2.2. 河野六郎[고노 로쿠로](1955;1979:42)

河野六郎[고노 로쿠로](1955;1979:42)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우법을 하칭[下稱], 등칭[等稱], 중칭[中稱], 상칭[上稱]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화자가 상대에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언의 종지어미를 변화 시키는데, 이 변화를 일단 겸칭변화[謙稱變化]라 부르겠다. 이 변화로서는 보통 하칭, 등칭, 중칭, 상칭을 구별하면 된다. 하칭이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이에게 말하는 말투이고 등칭이란 친한 사이에서 쓰는 말투이고 중칭이란 보통의 정중한 말투이며 상칭이란 더 정중한 말투이다. (인용자 번역)

## 2.3. 梅田博之[우메다 히로유키](1976,1985)

梅田博之[우메다 히로유키](1976)는 일본에서 19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어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의 한국어 교육이 오늘날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의 서적이지만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서에 속하며 일본의 한국어학습뿐만 아니라 한국어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어휘 집과 문법개설도 첨부되어 있다. 대우법에 대해서 梅田博之[우메다 히로유키](1976:27-28)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우법이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언어표현 상 어떠한 대우 표현을 사용하는가, 즉 화자가 청자를 상위자로 인정하고 경의표현을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의를 표하는가, 혹은 전혀 경의를 표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며 보통 대우법은 동사의 종지어미로 나타난다. 대우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4단계가 인정되며 이것을 상칭, 중칭, 등칭, 하칭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 외에 상술한 네 가지의 엄격한 대우단계를 지양하는 스타일로서 약대와 약대상칭이 있다.

위의 기술은 그 후 일본 대우법연구와 언어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直說法				
	陳述形			疑問形	
	現在	過去	未來	現在	過去
上稱	+습니다~+읍니다	+있+읍니다	+겠+읍니다	+습니까~ +읍니까	+있+읍니까
中稱	+소~+오	+있+오	+겠+오	+소~+오	+있+오
等稱	(A)+네, (B)+으이	+있+네	+겠+네	(A)+나(~는가), (B)+은가	+있+나 (~는가)
下稱	(A)+는다~+니다 (B)+다	+있+다	+겠+다	(A)+느냐~+니(B)+ 으냐~+니	+있+느냐 ~+니

	回想法		命令形	勸誘形
	陳述形現在	疑問形現在		
未來				
+겠+읍니까	+습디다~ +읍디다	+습디까~ +읍디까	+으십시오	+읍시다
+겠+오	---	---	+소~+오	+소~+오
+겠+나 (~는가)	+데	+던가	+게	+세
+겠+느냐~+니	+더라	+더냐	+어라	+자

상술한 중지형의 각 어미 외에 약대[略待]라고 불리는 스타일이 있다. 이것은 어간에 [+어]가 붙은 것으로, 같은 형태가 진술, 의문, 명령, 권유의 기능을 행한다: 봐, 놀아, 먹어. 이 약대형에 <-요>를 붙이면 약대상칭[略待上稱]이 된다.

직설법, 회상법, 명령법 등 서법별로 계칭의 제형식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약대가 다른 네 가지 계칭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가에 관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

梅田博之[우메다 히로유키](1985:271-273)의 기술도 위의 내용과 같은 틀에 있다.

#### 2.4. 남기심 · 고영근(1985;1997)

남기심 · 고영근(1985;1997)은 한국의 학교문법의 이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문법서이다. 대우법은 “높임법”의 항목에서 취급하고 있다. “높임법”은 존경의 접미사(선어말어미) “-시-” 등을 취급하는 “주체높임법”과 여기서 말하는 대우법, 즉 “상대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남기심 · 고영근(1985;1997:332)이 정리한 여러 문법가들의 “상대높임법”을 살펴보자:

- 28) 최현배, 「우리말본」(정음사, 1959) p.252 참조.
- 29) 허 용, 「표준문법」(신구문화사, 1969) p.63 참조.
- 30) 강운호, 「정수문법」(지림출판사, 1968) p.70 참조.
- 31) 강복수·유창균, 「문법」(형설출판사, 1969) p.42 참조.
- 32) 이희승, 「새문법」(일조각, 1964) p.101 참조.
- 33) 金敏洙, 「新國語學」(一潮閣, 1964) p.12 참조.

한국의 연구에서 최현배, 이희승의 술어가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 2.5. 菅野裕臣[간노 히로오미](1988;1991)

학습 사전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菅野裕臣[간노히로오미](1988 1991: 1034)에서는 <대우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스피치 레벨(speech level)이라기보다 형태가 대우법 단계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는 기술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sup>28)</sup>

아주높임 : 합쇼	} 등위 : 반말
예사높임 : 하오	
예사낮춤 : 하계	
아주낮춤 : 해라	

(나)<sup>29)</sup>

갑니다	} ←가(아)
가오	
가네	
간다	

(다)<sup>30)</sup>

극존대체 : 하소서  
 보통존대체 : 합쇼(합니다, 하오)  
 보통비대체 : 하계  
 극비대체 : 해라

(라)<sup>31)</sup>

아주높임 : 합니다.  
 예사높임 : 하오  
 예사낮춤 : 하네  
 아주낮춤 : 한다  
 반말 : 해

(마)<sup>32)</sup>

하소서체	} → 반말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바)<sup>33)</sup>

극존경 : 하나이다  
 보통존경 : 합니다  
 존경 : 하오  
 하대 : 하계  
 보통하대 : 해  
 극하대 : 해라

대우법

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나 친소(심리적 거리)의 차이에 기초를 두고 화자가 청자에게 대하여 취하는 태도의 표명을 말한다. 상칭, 중칭, 등칭, 하칭이라는 네 단계를 가지는 것과 상칭, 반말의 두 단계를 가지는 것이 있다.

## 2.6. 그 밖의 논고

그 밖에도 Martin(1992), 油谷幸利·門脇誠一·松尾勇·高島淑郎[유타니 유키토시 외]編(1993), Sohn Ho-min(1994), 서정수[徐正洙](1996)와 같

은 중요한 논고들이 많지만 연구사의 정리가 본고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3. 대우표현과 대우법을 보는 시각

#### 3.1. 언어존재론적인 시각 - 언어장을 둘러싸고

<언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시각에서 언어를 비추는 사고[思考]를 <언어존재론>(linguistic ontology or ontology of language)이라 부른다. 野間秀樹[노마 히데키](2007, 2008abc)에서 논의된 언어존재론은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대우표현과 대우법에 밀접히 관여되어 있다:

언어 그 자체와 언어 외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

음과 문자로서 물리적으로 대상화된 것이 언어이다.

언어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생략”이나 “삭제”된 것이 아니라 원래 언어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언어 그 자체와 언어를 산출하는 영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언어와 내언(inner speech)은 구별되어야 한다.

언어는 언어가 행해지는 장, <언어장>(linguistic field)에서 실현된다.

언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현상형태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준별되어야 한다.

언어의 존재양식으로서의 <말해진 언어>, <쓰여진 언어>와, 문체로서의 <입말체>, <글말체>는 구별되어야 한다.

언어적인 의미와 비언어적인 의미를 구별하고 언어학은 언어적인 의미를 다룬다.

말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의미가 <되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의미를 가진 말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 의미를 실현할 수도 있고 실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개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말의 반복사용 가능성을 지탱하고 있다.  
 말이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현되는 의미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의 반복사용  
 을 가능케 하고 있다.

### 3.2. 대우표현을 보는 시각

#### 3.2.1.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 <입말체=회화체>와 <글말체=문장체>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시각 중에서 대우표현이 실현되는 형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 <입말체>와 <글말  
 체>의 구별이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음성으로 실현하는  
 가, 문자로 실현하는가라는 언어의 존재양식, 실현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입말체>와 <글말체>는 표현상의 문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별한다.  
 <입말체>적인 문체로 쓰여진 <쓰여진 언어>도 있고, <글말체>적인 문체  
 로 말하는 <말해진 언어>도 존재하는 것이다. 노마 히데키[野間秀  
 樹](1996, 2002)에서 언급한 문체적인 구별에 덧붙여 여기에서 언어의 존재  
 양식과 문체의 구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고자 한다.

#### 3.2.2. <서울방언> - <서울말>의 변용

본고에서 우선 고찰할 대우표현은 기본적으로 <서울말>, <서울방언>  
 이다. 적지 않은 연구자가 <서울방언>이라는 술어에 고연령층에서 유지하  
 고 있는 이른바 <원래의> 서울방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  
 시대에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화자의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서울방언이라  
 고 하여야 한다. <원래의> 서울방언과 현재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화자의 서울방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시대에 따라 서울방언 그 자체의 양상이 변화하고 화자의 연령층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 서울방언을 비롯한 지방방언 역시 통시적인 변화를 겪는다.

어떤 언어사실이 서울방언인가 어떤가를 거론하려면 어느 시대의, 어떤 연령층의 언어인가 하는 동정(同定)이 불가결하며 “불변의 서울방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20세기 후반의 서울방언과 21세기 초두의 서울방언은 인토네이션의 청각 인상부터가 다르다. 예를 들면 명동의 일각에서 나누는 고령층의 대화를 들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인토네이션은 이미 젊은 층의 인토네이션과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방언>이라는 술어는 한편으로는 지방방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울말만의 특유한 표현>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해도 불식시켜야 한다. 다른 지방방언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와 문법 형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2.3. <서울방언>과 <표준어>

서울말, 지방방언으로서의 <서울방언>을 위와 같이 정립시킬 때 <서울방언>은 당연히 <표준어>와도 구별하여야 한다. 표준어는 방송 등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표준어는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화자의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아나운서 등, 언어와 관련된 일부의 직업 집단이 사용하는 일종의 <사회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의 표준어는 사실상 <표준어>라는 명칭의 사회방언이다.

모든 방송에서 표준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등에서는 서울방언이 훨씬 우세한 경향이 있다. 단지 방송이라는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표준어는 다른 사회방언과 질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표준어는 서울방언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서울방언은 이미 반세기를 경과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언어 내의 시스템으로서 서울방언과 표준어는 이미 단모음[單母音] 수도 다르다. 표준어는 10 개 정도의 단모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방언에서는 7모음 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장모음[長母音]과 단모음[短母音]의 구별도 젊은 층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음의 레벨에서는 특히 많은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표준어의 “네가”를 현재 서울방언에서는 “니가” 혹은 “너가”로 말하는 등 2인칭 대명사에서조차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준어 “나도”, “그리고”에 대해 서울방언 “나두”, “그리구” 등 모음교체도 일어난다. 표준어 “자장면”, “교과서”에 대해 서울방언 “짜장면”, “교과서” 등 평음의 농음화(된소리화)를 비롯하여 자음의 차이도 적지 않다. 표준어 “소개해 주세요.”(syookai-site kudasai)나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watasi-ni uso-o tukuna)에 대해서 서울방언 “소개시켜 주세요.,” “나한테 거짓말 시키지 마.” 등 어휘 사용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발음과 어휘의 차이 등은 미디어 등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표준어와 서울방언이 사실은 다른 것임을 필요에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언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어와 실제로 접하는 서울방언과의 차이에 학습자가 당황스러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서울방언과 표준어라는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가라는 점도 중요하다.

#### 3.2.4. 대우법에 있어서 <입말체>와 <글말체>

서울방언의 대우표현을 생각할 때 <쓰여진 언어>와 <글말체>를 정확히 정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에서는 문체의 관점에서 <입말체>와 <글말체>라는 두 가지 문체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립시켰다:

<입말체>는 <말해진 언어>에 나타나는 주요한 문체이고 <글말체>는 <쓰여진 언어>에 나타나는 주요한 문체이다.

<입말체>는 <회화체>라 부를 수도 있고 <글말체>는 <문장체>라 부를 수도 있다. 단, “구어”[口語]와 “문어”[文語]라는 명칭은 너무나 애매하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3.2.5. 서울방언 대우법의 패러다임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에서 제기한 각각의 기본적인 대우법의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입말체>에서의 대우법 체계

		경의체 = 소위 "존댓말"		비경의체 = 소위 "반말"	
		상징형		하징형	
		중징형			
		-았 / 었-	-겠-		
평서법	+	+	해요 (- 격식), 합니다 (+ 격식)	해, (한다)	
의문법	+	+	해요? (- 격식), 합니까? (+ 격식)	해?, 하니?, 하나?, 하느냐?	
감탄법	+	+	하네요, 하는군요	하네, 해, 해라, 하는군	
완곡법	+	+	하는데요	하는데	
확인법	+	+	하지요	하지	
체험법	+	+	하더라도요, 하데요, 하던데요, 하더군요	하더라도, 하데, 하던데, 하더군요	
의지법	-	-	할래요	할래	
약속법	-	-	할게요	할게	
권유법	-	-	-	합시다, 해요	하자, 해
명령법	-	-	하세요, 하십시오	해요	해, 해라

<글말체>의 문장체인 <한다>체를 default(초기상태)로 하고 있다. 그 외의 문체는 말하듯이 쓴다고 할 때에만 <입말체>의 문체를 빌려오는 것이다.

### 3.2.6. 사회방언과 <의사회화체>[疑似會話體]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에서 제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은 대우법 체계 안에서, 사회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한다는 점이다. 당해 방언의 넓은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사회집단, 한

정된 사회적 관계에서 사용되는 성질이 현저한 것은 사회방언으로서 정립시켜 그 방언의 넓은 부분을 통괄하는 대우법과는 구별하는 시각이다. 예를 들면 어떤 형식이 <시어머니가 사위에게>라는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회방언화되어 가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집단, 폭넓은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형식을 그 방언의 기본적인 대우법 체계 안에서 정립시킨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의 이러한 시각과 서울에서의 조사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오>체, <하네>체는 이미 사회방언화 되어 가는 것으로서 서울방언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문체와는 엄연히 다른 문체인 것이다:

<말해진 언어>의 스피치 레벨(speech level)로서의 <하오>체, <하네>체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진 회화체>, <의사회화체>에서 실현되는 문체라고 말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한정된 언어사용의 사회에서 쓰여지는 사회방언의 문체이다. 이러한 <의사회화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회화체와는 다른 것이다. 어휘는 물론, 문법 형식의 사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어의 “wasi-ga yatta-no-zya”와 같은 표현은 일상 생활에서 노인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화 안에서의 노인이라면 얼마든지 말하는 것이다. 의사회화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사회방언인 <의사회화체>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 서울방언의 화자에게는 익숙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언

어의 문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서울방언과 종종 혼동하기 쉽다.  
또한 <쓰여진 언어>의 <하오>체는 예를 들면 “미시오”(oosi kudasai),  
“당기시오”(ohiki kudasai)같은 게시문, 지시문 등에서 종종 쓰여진다.

### 3.2.7. 서울방언 스피치 레벨(speech level)의 양극분해 - 경의체[敬意體]와 비경의체[非敬意體]

<하오>체, <하네>체의 극소화[極小化], 사회방언화[社會方言化]는 서울  
방언 스피치 레벨의 양극분해[兩極分解]를 불러일으켰다:

서울방언은 <경의체>와 <비경의체>로의 양극화[兩極化]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언어사용에서 문체를 가리켜 <존댓말>과 <반말>  
로 부르는 양식은 바로 이러한 양극화의 일상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존댓말>이라는 것은 <경의체>이며 <반말>이라는 것은 <비경의  
체>인 것이다.

또한 Ramstedt(1939)의 기술에서 보이는 문체 사용은 당해의 방언에서  
널리 쓰여지는 스피치 레벨과 사회방언으로서의 문체가 혼합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사회방언으로서의 스피치 레벨을 방언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  
피치 레벨과 혼용하는 것은 언어 연구, 언어 기술의 이론적인 틀의 문체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 교육의 문체가 된다.

서울방언의 스피치 레벨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의체의 주요한 문체는 <해요>체이고 <합니다>체는 격식문체이며 경의  
체 안의 option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다. 또한 비경의체는 <해>체가 주요  
한 문체이고 이것이 default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종종 비경의체에 상응하는 문체로서 <한다>체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말해진 언어>인 서울방언의 비경의체로서 <한다>체를 정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비경의체로서의 <한다>체는 <쓰여진 언어>의 주된 문체인 <글말체>로서 생각할 수 있다.

### 3.2.8. 대우법을 서법(mood)별로 보다 - 대우법의 비수평성[非水平性]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대우법의 체계를 서법(mood)별로 본다는 시각이다. 각 서법마다의 수평성[水平性], 병행성도 고려하면서 대우법을 체계화한다는 시각이다.

서법별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언어사실로서 권유법인 <합시다>형의 용법을 들 수 있다. <합시다>형은 일반적으로 <합니다>체 즉 소위 <합쇼>체에 속하는 형태로 거론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서울방언에서 <합니다>체를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는 오늘날의 서울방언에서는 설정하기 어렵다. 뒷사람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합시다>형은 그 사용을 보면 경의체와 비경의체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형태이다. 경의체가 아니라면 분명히 비경의체인 것이다. 이것 하나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법마다 그 수평성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평서법과 의문법, 권유법 등의 다양한 서법이 문체적으로 반드시 수평적인 통일성, 병행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2.9. 스피치 레벨의 명칭

지금 “<합쇼>체”라고 말하였으나 이러한 명칭도 또한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언어사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명칭이기 때문이다.

우선 평서법을 기초로 <합니다>체, <해요>체, <한다>체와 같이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칭이 알기 쉽다. 명칭의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종종 언급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 4. 대우법 연구의 재조명

본장에서는 野間秀樹[노마 히데키](1996, 2002) 이후에 전개된 대우법 관련 연구에서 토대로 삼아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4.1.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준별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준별에 대해서는 金珍娥(2006), 野間秀樹 [노마 히데키](2007b, 2008ab)에서 더 심화된 논의가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의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아직 이념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담화와 텍스트가 상이하다는 것을 이념형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말해진 언어> 연구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체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붕괴된 말” 혹은 “개인적인 idiolect”, “젊은이들의 말”, 심지어는 “품위 없는 말”과 같은, 일종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사실은 그러한 선입견은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연구사적인 “근거가 있는 선입견”이라 하겠다.

그러한 선입견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연유된다:

첫째, <쓰여진 언어>와 <글말체>를 기준으로 <말해진 언어>와 <입말체>를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둘째, 화자의 언어사용에 대한 <의식>과 실제로 <말해진 언어>와의 괴리에 기인한다.

그리고 셋째, 언어에 대한 규범의식, 어느 정도 기술언어학적인 전통에 뒷받침된 규범의식에서 비롯한다.

전형적인 예로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담화에서의 문말의 <완충표현>(緩衝表現 buffering expression)에 대한 연구인 金珍娥(2008ab)를 보자. <완충표현>은 대우표현의 하나이기도 하다.

거기에 제시된 완충표현의 방대한 목록은, 이미 “붕괴된 언어”라든가 “개인적인”, “젊은이들의”와 같은 선입견을 무엇보다도 언어사실이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 40쌍, 각각 다른 160명, 연령 20대에서 40대까지의 조건이 통제된 자유회화의 언어 자료는 적어도 현재 개인 레벨에 있어서의 양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레벨에서도 아직 이러한 질과 양으로는 조사된 일이 없다. 완충표현이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50대 이상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완충표현이 나타날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는 화자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완충표현의 사용에 놀랄 정도라는 상태에 주목하여야 한다. 화자 자신은 그렇게까지 완충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대개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자 자신이 스스로의 표현에 대해 무자각, 무의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화자 자신은 더 정리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화자의 <말해진 언어>는 종종 화자의 그러한 의식과는 괴리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것 역시 金珍娥(2008b)가 지적하는 바이다. 화자의 언어의식과 실제로 <말해진 언어>사이의 괴리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도 역시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단절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모두 <말해진 언어>를 <쓰여진 언어>로, 즉 문자언어의 형식으로 제기된다.

“yokatta(toka)omottari suru)mitaina)kanzi)desune”(lit. 좋았다(라든가)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느낌)이죠)와 같은 <복합 완충체>나 “zenzen sigoto-ga naito iu”(lit. 전혀 일이 없다는)와 같은 <관형형 종지>는, <쓰여진 언어>로서는 규범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이러한 문장은 말하는 것을 듣는 한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쓰여져서 읽히는 경우에는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거부감도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깊은 차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쓰지 않고, 쓰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방금 완충표현이 말한 것을 듣는 한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언급하였으나 바로 듣는 이에게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완충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金珍娥(2008ab)가 보여 주는 것이다.

#### 4.2. <언어장>론에서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장면에서

언어존재론의 핵이 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장면에서 말하는가>라는 <언어장>(言語場 linguistic field)에서 언어가 실현된다는 시각이다. 대우표현이나 대우법은 바로 이러한 언어장이라는 자리매김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차이는 언어장의 차이이기도 하다.

## 4.2.1. 말은 화자가 선택한다

말은 언어장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행하는 것이다. 우선 <말해진 언어>에서 청자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가 대우표현과 대우법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우표현과 대우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어디까지나 화자가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자. 예를 들어 경의체, 비경의체의 문체의 사용은 청자가 손윗사람이기 때문에 경의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청자를 손윗사람으로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상에서 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자가 경의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에게 있어 그러한 문체의 선택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물론 화자의 경의와 언어상의 경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일본어의 경어를 중심으로 넓은 시점에서 논의하는 瀧浦眞人[다키우라 마사토](2005:104)는 <경어에서의 경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존경의 감정으로서의 <경의>와 실현된 경어에서 표현되는 <경의>는 서로 위상을 달리하는 <경의>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용자 번역)

## 4.2.2. &lt;말해진 언어&gt;에서의 복수 청자와 &lt;동석 구조&gt;[同席構造]

<말해진 언어>에서 청자는 언제나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의나 강연과 같은 일대 다수의 언어장도 있을 수 있으며 청자 두 명에게 동시에 말을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대우표현 연구에서도 충분히 의식화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언어장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다:

각각 다른 조건의 청자가 복수 존재하는 언어장

예를 들면 전화로 형이 동생에게 말을 한다.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 와 계시거든. 이따 전화할게.” 라는 발화는 동생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 옆에 있고 전화 내용을 들을지도 모를 공사 담당자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하는 사람이 와 있거든.”과 같은 발화와 비교해 보면 언어장에서의 대우표현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다. 학교의 수업 참관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관하는 학부모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는 손님에게 말을 하면서 종종 뒤에 앉아 있는 상사에게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인 대화자가 아닌 이러한 청자를 瀧浦真人[다키우라 마사토](2005:11)의 말을 빌려서 <동석자>[同席者]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동석자>는 단순히 화제에 오르는 인물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당해 언어장에서 청자로서 존재한다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직접적인 대화자가 아닌 언어장에서 청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화자가 인식하는, 직접적인 대화자가 아닌 <동석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석자가 존재하는 언어장의 구조>를 <동석 구조>[同席構造]라 부르기로 한다. 동석 구조는 <쓰여진 언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말해진 언어>에서 더욱더 명확히 나타나는 언어장이며 대우표현과 대우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문제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절대경어, 상대경어와 같은 개념장치도 이러한 언어장의 동석 구조에서는 문제가 된다.

瀧浦真人[다키우라 마사토](2005:9-16)가 간파했듯이 16세기 일본어를 상세히 관찰한 로드리게스는 이 <동석 구조>를 간파하지 않고 있다. 로드리게스(1993a)에서는 “요컨대 이러한 동사나 소사[小辭]는 대화자, 화제가 되어 있는 사람, 눈앞의 사람, 화제가 되어 있는 사항을 항상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로드리게스(1993b:76-77)에서는 “일본어의 아름다움은 모두 화자, 대화자, 눈앞의 사람, 화제를 항상 고려해서 존경의

소사, 겸양의 소사, 존경도 0(제로)의 무색동사, 각각 일정한 경의와 존경이 담겨진 존경동사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떠냐에 달려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눈앞의 사람”이란 바로 동석자이다. 로드리게스(1993b:80)의 “지위가 높은 두 사람에게 말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분명히 지위가 높으면”과 같은 기술도 동석자 구조를 배려한 것이다.

#### 4.2.3. <동석 구조>로서의 <쓰여진 언어>와 <의사회화체> [擬似會話體]

<말해진 언어>뿐만 아니라 <쓰여진 언어> 역시 같은 언어장에서 복수의 읽는 이가 존재할 수 있다. 로드리게스의 시대라면 길의 안내판이나 고찰[高札]도 그러한 언어장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문자나 네온사인 등도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예들은 일대 다수의 단순한 구조이다.

앞에서 말한 <말해진 언어>에서의 <동석 구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조건이 다른 복수의 청자를 동시에 가지는 <동석 구조>, 직접적인 대화자와 다른 자격의 청자를 가지는 <동석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는 직접적인 대화자에게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쓰여진 언어>, 예를 들면 소설의 회화문을 생각해 보자. 극중의 회화문 안에서 화자 a가 청자 b에게 말을 한다. 이야기 속에 언어적으로 형성된 언어장, 즉 언어 공간 속의 언어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앞에서 <쓰여진 언어>인 시나리오나 소설의 회화문에서의 <의사회화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의사회화체>에서의 대우표현과 대우법은 바로 이러한 <동석 구조>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대가 좀 하게.”라고 실제적인 서울방언에서는 말하지 않을 언어장이라도 <의사회화체>라는 언어 공간에서의 언어장에서는 등장인물인 화자는 말한다. “wasi-wa ozii-san-zya.”라고 실제로는 말하지 않을 언어장에서도 그것이 <의사회화체>라면 등장인물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석자인 읽는 이에게 말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언어 공간에서의 등장인물의 성격 부여, 인물간의 관계 표시, 등장인물의 심리표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등장인물 b에게 말을 하는 형태를 취하며 실제적인 동석자인 읽는이에게 들려주기 위한 표현으로서 <의사회화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의 회화문, 드라마의 회화문을 비롯한 <의사회화체>는 <동석 구조>가 지탱하고 있다.

### 4.3. 서법별 기술

대우법의 패러다임을 그리는 경우에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과 같은 서법별의 재검토를 주장한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의 시각에 대해서는 언어 교육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4.3.1. 권유법

한국에서의 연구를 보아도 예를 들면 국립국어원(2007)에 보이는 <합시 단>형에 대한 실제 언어 사용이 수평성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기술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 밖에도 野間秀樹[노마 히데키](2000:181)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Ⅱ-ㅂ시다>라는 권유형이 있지만 손윗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존경의 접미사가 붙은<Ⅱ-십시오>이라는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손윗사람에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유법의 상칭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합니다>체, <해요>체밖에 배우고 있지 않는 학습 단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합시다>형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4.3.2. 체험법 (회상법, 목격법, 보고법)

접미사 (선어말어미) <-더->로 형성된 여러 가지 체험법의 형태가 기존의 논고에서는 종종 <합니다>체에서<합디다>라는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에서는 체험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합디다”가 기본적으로 소실되어 그 대신 “하더라구요”, “하데요”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체험=완곡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던데요”나 <체험=감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더라구요”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도 나타났으나 “하더라구요”가 “합디다”를 대신하는 주요한 형태임을 논하고 있다.

체험법의 실제 형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그 후의 연구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언어 교육에서도 상술한 서울방언의 실태에 맞추어 체험법을 교재 안의 패러다임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4. <한다>체를 둘러싸고

<한다>체란 동사에서는 “간다”나 “먹는다”와 같이<<sup>V</sup>-다/-는다>라는 어미로 끝을 맺고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에서는 “좋다”, “있다”, “책이다”처럼 <-다>라는 어미로 끝을 맺는 형태이다. 과거 접미사<<sup>V</sup>-ㅁ->나<<sup>V</sup>-ㅂ->이 붙은 형태도 <갔다>나 <좋았다>와 같이 <-다>라는 어미로 끝을 맺는다.

글말체에서는 이<한다>체가 default (초기 상태)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입말체의 문체로서는 물론이고 실제의 말해진 언어에서도 <한다>체가 쓰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것처럼 이 <한다>체는 서울방언의 비경의체의 기본적인 스피치 레벨로서 과연 설정할 수 있는 것일까. <해>체와 병행적으로 <한다>체를 비경의체의 기본적인 스피치 레벨로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일까.

<말해진 언어>에 나타나는 <한다>체를 관찰하면 거의 <감탄>이나 <선언> 혹은 <반문>[反問]이라고 해야 할 특정한 서법성(modality)이 짙게 인정된다. 실제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자:

(20대 여성) 야, 이거 진짜 웃긴다.

(30대 남성) 야, 와이프 본지 진짜 오래 됐다.

(30대 여성) 허, 대단하다.

(30대 여성)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한다>체는 <해>체, 즉 비경의체에만 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요>체와 <합니다>체가 담당하는 경의체의 담화에도 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다>체는 역시 거의 예외 없이 위의 예들처럼 <감탄>이나<<sup>V</sup>선언>이라는 특정한 서법성이 농후하다. 거꾸로 말하면 <해요>체나

<합니다>체를 사용하는 경의체 담화에 있어서 <감탄> 이나 <선언>이라는 무드를 나타낼 때 <한다>체의 사용이 허락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서법에 있어서 글말체의 <한다>체와는 현저히 상이한 것이라 하겠다. 즉 단순한 평서법 혹은 진술법의 서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감탄법이나 선언법이라고 불릴 만한 서법 형식으로서 정식화할 수 있다. 스피치 레벨의 패러다임을 서법별로 검토한다는 원칙에 선다면 한다체는 비경의체에서의 평서법에 주요한 형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의 담화에 나타나는 예를 관찰해 보면 <감탄>이나 혹은 특정한 인토네이션을 가진 “나 간다~.”와 같은, <선언>이라 해야 할, 특정한 서법성이 강한 예 이외의 것들은 그 대부분이 피인용문의 종지형으로서 이 <한다>체가 사용되어 있다.

<한다>체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野間秀樹[노마 히데키](2004, 2007:163)와 같은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글말체> 중의<한다>체의 낭독과 <입말체> 중의<한다>형(<한다>체가 아님)의 인토네이션의 대조를 보여 주는 기술이다:

[書きことば<sup>1</sup>한다<sup>2</sup>体の朗読]

**나 간다. 나는 간다. 그 아름다운 땅, 내 고향으로.**

我は行く。我は行く。かの美しき地、我がふるさとへ。

**수진에게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다.**

スジンについてボーイフレンドができた。

[話しことば<sup>1</sup>해<sup>2</sup>체<sup>3</sup>における한다<sup>4</sup>形の発音]

**미나야, 나 간다. 이따 보자.**

美奈、わたし行くから。あとでまたね。

**미나야, 나 남자친구 생겼다. 만나 볼래?**

美奈、わたしボーイフレンドできちゃった。会う？

#### 4.5. 비경의체의 기본적인 문체로서의〈해〉체

예를 들면 서울말 화자인 20대(20-23세), 30대(30-33세), 친구끼리의 각각 다른 24명으로 구성되는 12개 대화, 1004개의 발화문에 나타난 문말의 용언 형태의 사용빈도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담화는 모두 테마를 미리 제한하지 않는 자유 회화이며 화자의 성별은 남성: 남성 4조, 남성: 여성 4조, 여성: 여성 4조의 구성이다. 담화 자료의 구성은 金珍娥(2006)에 의거하였다:

[표] 친구끼리의 대화에 나타난 문말의 용언 형태

해	355	35.4%
해?	81	8.1%
한다	58	5.8%
하지	143	14.2%
하지?	33	3.3%
접속형 종지	246	24.5%
기타	88	8.8%
합계 발화문 수	1004	100.0%

모든 용언을 “하다”로 대표시켰음. “접속형 종지”란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한 형태임.

35.4%가 <해>형 평서문, 8.1%가 <해>형 의문문으로, 전체 1004 예 중, 도합 436 예, 43.4%가 <해>체이었다. 24.5%는 접속형(부동사형) 종지, 14.2%는<하지>형 평서문, 그리고 5.8%가 <한다>형이 사용되고 있다.

<한다>형으로 나타난 것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감탄>이나 <선언>의 서법성이 짙은 용례가 많다.

이러한 사용빈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해>체가 비경의체의 기본적인 문체임을 알 수 있다.

#### 4.6. 스피치레벨 시프트(speech level shift)와 비술어문의 대우기능

최근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스피치 레벨 시프트에 관한 연구, 金珍娥(2003)가 있다. 거기서는 손윗사람이나 초대면의 상대방에게 <합니다>체, <해요>체라는 경의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나 <한다>체와 같은 비경의체가ダイナミック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그려져 있다:

스피치 레벨은 일정한 화계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변용을 보이면서 담화가 형성되어 간다.

그리고 스피치레벨의 대화 속에서 이행되는 양상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서술어로 통합되지 않은 문장, 즉 비술어문의 대우 기능도 논의되어 있다.

용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우법뿐만 아니라 용언의 서술어로 통합되지 않은 비술어문에 있어서도 스피치 레벨이 지탱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 4.7. 공손화 표지<-요/-이요>

野間秀樹[노마 히데키](2006)에서는 공손화 표지 <-요/-이요>를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요/-이요>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의된 모노그래프라 생각된다. 공손화 표지 <-요/-이요>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모두 서울방언 화자 초대면 두 사람의 회화이다. 金珍娥(2006)의 <복선적 문자화 표기 시스템>에 따라 표기한다.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면서 이 <-요/-이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0代男	예. 뭐, 어디 사십니까?.	암사동이요?.	여기서 가깝네요.
30代男	저요?.	암사동 삽니다.	예.
30代女	11년 짜요.	에어로빅부터 시작했으니깐요.	

40代男	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허. 11년.
30代女	아아, 나름대로는요.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구요.
40代男	그럼, 전문가이시네요.	우와.
40代男	지금 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서른 셋이요?.
30代男	제가 서른 셋입니다.	예.
40代男	애가 한 몇 살 되십니까?	두 살이요?. 한참 귀여울 때네요.
30代男	지금 두 살	이요.
30代男	아, 대표곡 있나요?	예. 예.
20代女	대표곡이요?	자작곡?. 자작곡은 많죠.
20代男	예, 보컬이요.	예. 예.
30代女	보컬?. 어-. 그럼 노래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20代男		2학년 휴학 중이구요. 예.
30代女	그러면 학교 휴학 중이시면은 몇 학년?	2학년이요?. 아.
20代男	근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좀 잘하는 방법 있나요?	예.
30代女	예.	영어 잘하는 방법이요?. 어, 제가
30代男	아. 멋진 일은 아니구요,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일을.	예.
40代女	멋진 일하시네요.	일어요?. 음.

한국어 교재인 野間秀樹·金珍娥(2004:43-45)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인용자 번역)

<-요>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나 “-는/은”이나 “-를/을”와 같은, “-르”, “-니”, “-口”으로 끝나는 어미류 직후에 사용되고, <-이요>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 사용된다. 어느 쪽이 붙느냐는 실제로는 약간의 흔들림이 보인다. 자음으로 끝나는 “책”에는 “채기요”처럼 <-이요>가 붙고, 일반적으로는 [채-기-요]처럼 3음절로 발음된다. 책요 [채교], [챙뇨]처럼 <-요>가 붙어서 2음절로 발음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한 “저는요” [저는뇨]에 보이는 것처럼, <-요>가 자음으로 끝나는 요소에 붙을 때는 ㄴ[n]삽입이 일어날 수 있다.

(용례 생략)

또한 다음의 <정말>처럼 <-요/-이요>의 결합양상이나 발음에 있어서 바리에이션이 있는 것도 있다.

정말이요? ----- 정말요? honntoo-desuka

[정마리요]      [정말료][정마료]

金珍娥(2005:12-18)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간 도식적이긴 하나 이 <-요/이요> 만으로 이루어지는 회화를 제시하고 지정사 <-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회화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A:숙제는요? - B:아직이요. - A:내일 수업은요? - B:아침 아홉 시부터요. - A:정말이요? 그렇게 일찍이요? - B:그럼요. - A:교재는요? - B:이 책이요.

위의 회화는 모두 <-요/-이요>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요/-이요>가 없으면 공손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사 <-이다>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회화라는 점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인용자 번역)

이<sup>V</sup><-요/-이요>가 지정사 <-이에요/-에요>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지정사는 활용이 있으며, 시체의 대립을 가진다. 여러 가지 무드 어형을 가진다는 점에서, 활용도 없고, 시체의 대립도 없으며 여러 가지 무드 형식도 없는 <-요/-이요>와는 확실히 구별된다. 이 점은 일본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네? 저요?”는 “e, watasi-desuka?”가 되고, “담당이 저예요?”는 “tantoo-wa watasi-desuka?”가 된다. 공손화 <-요/-이요>로 표현되는 것과 지정사로 표현되는 것을 일본어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desu>, <…desuka>라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용법의 구별은 언어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우법과 대우표현의 연구 및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손화의 <-요/-이요>가, 언어 연구에서도, 언어 교육에서도 거의 대상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형태소의 인정을 실제 언어사실에 따라서 <-요/-이요>로 정식화 할 수 있었던 것은 “polite particle”로서 <-요/-이요>를 취급하고 있는 사전, Martin·李馱河·張聖彦(1968), 그리고 野間秀樹[노마 히데키](1988:76-77)의 <반문의 어미>, 이상억 외(1994; 2004:48), 野間秀樹(2002:59), 野間秀樹·金珍娥(2004), 野間秀樹·村田寬·金珍娥(2004) 등 외에는 없다. <-요>에 한해서 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서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梅田博之[우에다 히로유키](1976:29), 菅野裕臣[간노 히로오미](1981:164-165)의 <접속형의 상칭어>, 菅野裕臣[간노 히로오미]他(1988:642), 高永根(1989), 深見兼孝[후카미 가네타카]·多和田眞一郎[다와타 신이치로](1993), 이희자·이종희(2001:725-726)의 <문장의 종결조사>, 內山政春[우치야마 마사하루](2004:53) 등의 기술은 그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 <말해진 언어>에 있어서 <-요/-이요>의 사용빈도는 지극히 높다. 20대, 30대, 40대 서울방언 화자, 28조, 56명의 초대면과 친구끼리의 자유회

화로 구성된 실제의 <말해진 언어>를 조사해 보면, 각각 회화 첫 부분 5분간에 나타난 4,730개의 문장 안에, <-요/-이요>는 301번이나 나타난다. 요컨대, <-요/-이요> 없이는 회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형태인 것이다. 물론 <해요>체를 형성하는 <-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이요>는 조금씩 언어 교육의 현장에서도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제시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제시가 되어 있어도 <-요>라는 형태만 거론하고 <-이요>라는 형태는 빼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형태론적인 자리매김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교재에서의 자리매김이라는 점에서는 金珍娥(2005:12-18)의 기술이 가장 본격적이라고 보여지며 野間秀樹·村田寬[무라타 히로시]·金珍娥(2007;2008:54-59)에서도 중요시 되어 있다. 앞으로는 교재에서도 확실히 제시되어야 한다. <-요/이요>가 없으면 공손한 <말해진 언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 공손화 표지 <-요/-이요>를 한국어 연구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도 한국어 연구는 <말해진 언어>를 제대로 정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루고 있었던 것은 문체로서의 <입말체=회화체>였을 뿐 <말해진 언어> 그 자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언어존재론적인 시각에서 <언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생각한다면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를 준별하여 각각의 언어사실을 직시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 4.8. 인터넷 언어<하삼>체, <하셈>체와 사회방언

근 10년 간에 일어나고 있는 <쓰여진 언어>의 거대한 변용도 놓칠 수 없다. 다름 아닌 인터넷 상에 오고가는 <쓰여진 언어>가 그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정복 외(2000) 등이 적극적인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須賀井義教[스카이 요시노리](2008)는 <하삼>체, <하셈>체를 비롯하

여 새로운 표현과 문체, 형식의 등장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여진 언어>와 <말해진 언어>의 상호침투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5. 마무리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2002a)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함께 Noma(2005),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6), 野間秀樹[노마 히데키](2007, 2008abc)에서 거론한 원리론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재구성하여 대우표현과 대우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우표현과 대우법 연구는 단순히 패러다임을 그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장면에서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언어장>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의 다양한 양상과, 언어에 투영되는 사회적인 성격까지,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나타내는 표현의 총체적인 장치이다. 그것은 언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비추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강규선(1995). '恭遜法 研究-무정과 신소설의 비교를 위한-', "基谷 姜信沆 博士 定年退職紀念 國語國文學 論叢", 서울: 太學社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第10卷, 第2號, 서울: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실(1960). "조선어문법 1", 평양: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영인) 동경: 학우서방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사전 연구실(1962). "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원 출판사. 번인 출판 東京: 학우서방.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a).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b).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 용법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金敏洙(1971). "國語文法論", 서울: 一潮閣
- 김영기(1996). '한국어 경어법에 있어서의 자기 높임과 경어체계의 변동',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 論叢", 서울: 신구문화사
- 김정수(1996). '높임법의 등분',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金鍾埴編著(1984). "國語敬語法研究" 서울: 集文堂
- 金忠會(1990). '謙讓法',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主題別 國語學 研究史",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編, 서울: 東亞出版社
- 김혜숙(1991). "현대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태학사
- 남기심 · 고영근(1985;1997).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塔出版社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3). '現代韓國語의 對格과 動詞의 統辭論', 제20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서울: 국어학회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 - 일본어화자의

- 경우’, “語学研究所論集”, 第1号, 東京: 東京外国語大学 語学  
研究所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a). ‘현대한국어의 대우법 체계’,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6b).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언어학”, 제19  
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2a).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대학사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2b).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7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6). ‘단어가 문장이 될 때: 언어장 이론 - 형태  
론에서 통사론으로, 그리고 초형태통사론으로- ’ “*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nium?* 21세기 형태론 어디  
로 가는가” Ko, Young-Kun, et al. (eds.) Seoul: Pagijong  
Press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7). ‘한국어 교육의 원리론으로서의 대조언어학  
적 접근 - 한국어와 일본어’, “2007年度韓國語教師研修講義要  
旨”, 東京: 國際文化フォーラム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8). ‘언어를 배우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한국어 교육의 시점’, “한글: 한글 학회 창립 100돌 기념 특  
집” 겨울호, 282호, 서울: 한글 학회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 김진아[金珍娥](2006). ‘NHK(일본방송협회) 텔레  
비전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제17권  
2호, 서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 나카지마 히토시[中島仁](2005a). ‘일본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나카지마 히토시[中島仁](2005b). ‘일본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론 3”, 서울: 한국문화사
- 朴甲洙 編著(1994). “국어 문체론”, 서울: 大韓教科書
- 閔賢植(1984). ‘開化期 國語의 敬語法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第9輯, 서울: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 朴榮順(1976). ‘國語敬語法の 社會言語學的 研究’, 金鍾埴編著(1984)에 收錄
- 서상규(1996). ‘일본어의 높임법과 한국어 교육’,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서상준(1996). “현대국어의 상대높임법”, 서울: 전남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編(1973). “國語國文學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편(1996). “고등 학교 문법”, 서울: 교육부
- 徐禎穆(1983). ‘命令法 語尾와 恭遜法の 等級 - 근대 국어와 경상도 방언의 경우-’, “冠嶽語文研究” 第8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서울: 塔出版社
- 徐正洙(1984). “존대법의 연구— 현대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 한신문화사
- 서정수(1996). “국어문법 (수정증보판)”, 서울: 한양대학교출판원
- 徐泰龍(1985). ‘국어의 命令形에 대하여’, “國語學”, 14, 國語學會편, 서울:塔出版社
- 成者徹(1970;1975). ‘國語 待遇法 研究’ “現代國語文法”, 南基心 외編,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 成者徹(1990) ‘恭遜法’,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主題別 國語學 研究史”,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編, 서울: 東亞出版社
- 성기철(1996). ‘현대 한국어 대우법의 특징’,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송경숙(2003).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申昌淳(1984). ‘現代國語 尊待法 概說’ 金鍾埴編著(1984)에 收錄
- 심재기(1999). “국어 문체 변천사”, 서울: 집문당
- 安秉禧(1982). ‘中世國語 謙讓法 研究에 대한 反省’, “國語學”, 11, 國語學會편, 서울: 塔出版社
- 이경우(1998). “최근세국어 경어법 연구”, 서울: 대학사
- 이원표(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원표(1996).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나타난 공손법 분석’, “말”, 제 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 이윤하(2001). “現代 國語의 待遇法 研究”, 서울: 亦樂
- 李翊燮(1974). ‘國語敬語法の 體系化問題’, “國語學”, 2, 國語學會편, 서울: 國語學會
- 李翊燮(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정복 외(2000). “바람직한 통신언어 활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任洪彬(1990). ‘尊敬法’,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主題別 國語學 研究史”,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研究會編, 서울: 東亞出版社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한길(1989). ‘현대 국어 예사낱춤 종결 접미사에 관한 연구’, “한글”, 제 205호, 서울: 한글학회
- 洪允杓(1985). ‘助詞에 의한 敬語法 表示의 變遷’, “國語學”, 14, 國語學會편, 서울: 塔出版社
- 黃迪倫(1976). ‘韓國語待遇法の 社會言語學的 記述— 그 形式化 (Formularization)의 可能性’, “言語와 言語學”, 第4輯, 서울: 한국의국어대학 언어연구소
- 靑山秀夫(1969-70).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一)(二)(三) - 京畿道

- 驪州邑における實態調査報告」, 『朝鮮學報』, 第51, 53, 57  
輯, 天理: 朝鮮学会
- 梅田博之(1976). 『韓国語 I II』, 東京: 東京三中堂
- 梅田博之(1977). 「朝鮮語における敬語」, 大野晋・柴田武編(1977)所収
- 梅田博之(1979). 「朝鮮語の敬語」, 『月刊言語』, 6月号, 東京: 大修館書店
- 梅田博之(1982). 「朝鮮語の語彙Ⅱ 意味に関する問題」, 『講座日本語学12  
外国語との対照Ⅲ』, 寺村秀夫他編, 東京: 明治書院
- 梅田博之(1985). 『NHKハンゲル入門』,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 梅田博之 (1987). 「韓國の敬語」, 『月刊言語』, 7月号, 東京: 大修館書  
店
- 梅田博之(1989). 「朝鮮語」, 『言語学大辞典 第2卷 世界言語編(中)』 亀  
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編著, 東京: 三省堂
- 荻野綱男・金東俊・梅田博之・羅聖淑・盧顯松(1990). 「日本語と韓国語の  
聞き手に對する敬語用法の比較對照」, 『朝鮮學報』, 第136  
輯, 天理: 朝鮮学会
- 荻野綱男・金東俊・梅田博之・羅聖淑・盧顯松(1991). 「日本語と韓国語の  
第三者に對する敬語用法の比較對照」, 『朝鮮學報』, 第141  
輯, 天理: 朝鮮学会
- 大江孝男(1988). 「現代朝鮮語の敬意表現體系に関するおぼえがき」 『アジ  
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第35号, 東京: 東京外国語大学ア  
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 大野晋・柴田武編(1977). 『岩波講座 日本語4 敬語』, 東京: 岩波書店
- 門脇誠一(1997). 「現代朝鮮語の研究(文法以外の分野)」, 国立国語研究所  
『日本語と外国語の対照研究Ⅳ 日本語と朝鮮語(上卷)』, 東  
京: くろしお出版
- 蒲谷宏・川口義一・坂本恵(1998). 『敬語表現』, 東京: 大修館書店
- 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編著(1988-1996). 『言語学大辞典 第1卷-第6卷』,

東京：三省堂

菅野裕臣(1981).『朝鮮語の入門』, 東京：白水社

菅野裕臣(1988).「文法概説」菅野裕臣他(1988;1991)収録

菅野裕臣編(1985-1987).『基礎ハングル』第1巻第1-12号, 第2巻第1-12号, 東京：三修社

菅野裕臣・早川嘉春・志部昭平・浜田耕策・松原孝俊・野間秀樹・塩田今日子・伊藤英人共編, 金周源・徐尚揆・浜之上幸 協力(1988;1991).『コスモス朝和辞典』, 東京：白水社

金珍娥(2003).「“turn-takingシステム”から“turn-exchangingシステム”へ - 韓国語と日本語における談話構造：初対面二者間の會話を中心に」『朝鮮學報』第187輯, 天理：朝鮮學會

金珍娥(2004a).「韓国語と日本語のturnの展開から見たあいづち發話」『朝鮮學報』第191輯, 天理：朝鮮學會

金珍娥(2004b).「韓国語と日本語の文, 發話單位, turn-談話分析のための文字化システムによせて」『朝鮮語研究2』, 東京：くろしお出版

金珍娥(2005).『NHKテレビ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ハングル講座』野間秀樹監修, 2005年5月号, 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金珍娥(2006).『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における文末の構造』,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博士論文, 東京：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

金珍娥(2008a).「日本語と韓国語の文末における緩衝表現-剰余構造と欠如構造」, 第59回朝鮮学会大会發表要旨, 於：麗澤大学

金珍娥(2008b).「談話だったりする。- <話されたことば>への視座」, 待遇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講演会要旨, 東京：待遇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金順任(2005).『日本語と韓国語の第三者敬語の対照研究』,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博士論文, 東京：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

- 金東俊(1989). 「現代韓国語の対者待遇法の体系」, 『神田外語大学紀要』, 第1號, 千葉: 神田外語大学
- 權在淑(1995). 『これからの朝鮮語』東京: 三修社
- 河野六郎(1955). 「朝鮮語」『世界言語概説 下卷』服部四郎・市川三喜編, 東京: 研究社
- 河野六郎(1977). 「文字の本質」『岩波講座 日本語 8 文字』, 東京: 岩波書店, 河野六郎(1980)および河野六郎(1994)に所収
-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東京: 平凡社
- 河野六郎(1980). 『河野六郎著作集 第3卷』, 東京: 平凡社
- 河野六郎(1994). 『文字論』, 東京: 三省堂
- 河野六郎・千野栄一・西田龍雄編著(2001). 『言語学大辞典 別巻 世界文字辞典』, 東京: 三省堂
- 須賀井義教(2008). 「インターネットからの接近」, 野間秀樹編著(2008)所収
- 徐正洙(1978). 「韓國現代敬語法の推移—最近の設問調査をもとにして」, 『朝鮮学報』, 第89輯, 天理: 朝鮮學會
- 徐禎穆(1996) 「現代韓国語 '하오體語尾' の形態論的特徴」, 히라키[平木葉子] 訳, 『朝鮮學報』, 第159輯, 天理: 朝鮮学会
- 滝浦真人(2005). 『日本の敬語論—ポライトネス理論からの再検討』, 東京: 大修館書店
- 中村春作(1994). 「「敬語」論と内なる「他者」」『現代思想』, 第22卷第9号, 8月号, 東京: 青土社
- 野間秀樹(1988a). 『길 朝鮮語への道』, 東京: 有明学術出版社
- 野間秀樹(1988b). 「<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朝鮮学報』, 第129輯, 天理: 朝鮮学会
- 野間秀樹(1988b). 「<할것이다>の研究—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朝鮮学報』, 第134輯, 天理: 朝鮮学会
- 野間秀樹(1990a). 「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

- 学報』, 第135輯, 天理: 朝鮮学会
- 野間秀樹(2000;2002). 『至福の朝鮮語 改訂新版』, 東京: 朝日出版社
- 野間秀樹(2004). 『NHKラジオ 안녕하세요! ハングル講座』, 7-9月号,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 野間秀樹(2005). 「韓国と日本の韓国語研究—現代韓国語の文法研究を中心に」, 『日本語学』, 第24巻第8号, 7月号, 通巻第295号, 東京: 明治書院
- 野間秀樹(2006). 「現代朝鮮語の丁寧化のマーカ―yo/-iyooについて」, 『朝鮮学報』, 第199輯・200輯合併号, 天理: 朝鮮学会
- 野間秀樹(2007a). 『絶妙のハングル』,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 野間秀樹(2007b). 「試論: ことばを学ぶことの根拠はどこに在るのか」, 野間秀樹編著(2007)所収
- 野間秀樹(2007c). 「音声学からの接近」, 野間秀樹編著(2007)所収
- 野間秀樹(2007d). 「音韻論からの接近」, 野間秀樹編著(2007)所収
- 野間秀樹(2007e). 「形態音韻論からの接近」, 野間秀樹編著(2007)所収
- 野間秀樹(2007f). 「動詞をめぐって」, 野間秀樹編著(2007)所収
- 野間秀樹(2008a). 「言語存在論試考序説Ⅰ—言語はいかに在るか—」, 野間秀樹編著(2008)所収
- 野間秀樹(2008b). 「言語存在論試考序説Ⅱ—言語を考えるために—」, 野間秀樹編著(2008)所収
- 野間秀樹(2008c). 「韓国語学のための文献解題—現代韓国語を見据える—」, 野間秀樹編著(2008)所収
- 野間秀樹(2008d). 「音と意味の間に」, 『國文學』, 10月号, 東京: 學燈社
- 野間秀樹(2008e). 「朝鮮語の教科書が目指すもの」, 『外国語教育研究』, 第11号, 東京: 外国語教育学会
- 野間秀樹編著(2007). 『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東京: 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編著(2008). 『韓国語教育論講座 第4巻』, 東京: 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金珍娥(2004). 『Viva! 中級韓国語』, 東京: 朝日出版社
- 野間秀樹・金珍娥(2007). 『ニューエクスプレス韓国語』, 東京: 白水社
- 野間秀樹・中島仁(2007).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歴史」, 野間秀樹編著  
(2007)所収
- 野間秀樹・村田寛・金珍娥(2004). 『ふち韓国語』, 東京: 朝日出版社
- 野間秀樹・村田寛・金珍娥(2007;2008). 『Campus Corean はばたけ!韓国語』, 東京: 朝日出版社
- 林四郎・南不二男編(1974). 『敬語講座1 敬語の体系』, 東京: 明治書院
- 藤井幸之助(2008). 「朝鮮語=韓国語教育のための文献リスト」, 野間秀樹編著(2008)所収
- 白峰子(2004). 『韓国語文法辞典』, 大井秀明訳, 野間秀樹監修, 東京: 三修社
- 堀口純子(1997). 『日本語教育と会話分析』, 東京: くろしお出版
- 三尾砂(2003). 『三尾砂著作集 I』, 東京: ひつじ書房
- 三上章(1960-1972). 『三上章著作集』, 東京: くろしお出版
- 水谷信子(1983). 「あいづちと応答」 『話しことばの表現 講座日本語の表現 3』, 水谷修編, 東京: 筑摩書房
- 水谷信子(1988). 「あいづち論」 『日本語学』 vol.7, no.12, 東京: 明治書院
- 南不二男(1993). 『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 東京: 大修館書店
- メイナード, 泉子・K(2005). 『談話表現ハンドブック』, 東京: くろしお出版
- 油谷幸利・門脇誠一・松尾勇・高島淑郎編, 小学館・金星出版社共同編集  
(1993). 『朝鮮語辞典』, 東京: 小学館
- ロドリゲス(1993a). 『日本語小文典(上)』, 池上岑夫訳, 東京: 岩波書店
- ロドリゲス(1993b). 『日本語小文典(下)』, 池上岑夫訳, 東京: 岩波書店
- ロドリゲス, ジョアン(1993c). 『日本小文典』, 日埜博司編訳, 東京: 新人物往来社

- Martin, S. E.(1964). 'Speech Levels in Japan and Korea',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Hymes, D.(ed.) New York: Harper & Row
- Martin, S. E.(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Rutland, Vermont & 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 Noma, Hideki(2005). When Words Form Sentences; Linguistic Field Theory: From Morphology through Morpho-Syntax to Supra-Morpho-Syntax. *Corpus-Based Approaches to Sentence Takagaki Structures*. Usage-Based Linguistic Informatics 2. et al. (ed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Noma, Hideki(2005). Korean,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ume 1, (ed.) Philipp Strazny, New York : Fitzroy Dearborn
- Ramstedt, G.J.(1939). *A Korean Grammar*, (= "MSFOu" 82), Helsinki : Suomalais-Ugrilainen Seura
- Sacks, Harvey, Emanuel A. Schegloff, Gail Jefferson(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vol.50, no.4, Baltimore, Maryland: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Sohn, Ho-min(1994) Korea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ardhaugh, R.(1986,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lackwell
- Холодович, А. А.(1954) Очерк граммати ки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 Abstract

### 待遇表現と待遇法—いくつかの視角

野間秀樹

(東京外國語大學)

本稿の目的は現代韓国語の待遇表現と待遇法をめぐる原理論を確認し、そうした原理論の上に乗って、近年の諸研究の成果を見据えつつ、待遇法体系に関わる諸問題を照らし返すところにある。

原理論は、野間秀樹(2008ab)で提起した<言語存在論>的思考からの<言語場論>に立脚するものである。言語存在論とは、<言語はいかに在るか>という問いをめぐる思考であり、言語場論とは、<誰が誰に向かっていかなる場で語るのか>という問いから、言語が行われる場を見据える思考である。待遇表現と待遇法は、こうした原理論から照らし返さねばならない。

言語存在論が提起する問題のうち、何よりも言語の実現形態としての<話されたことば>および<書かれたことば>と、文体としての<話しことば>および<書きことば>との区別は決定的な意義を有する。言語研究は文体としての<話しことば>を見ていながら、実際の<話されたことば>を見ているとの錯覚へしばしば陥ってきた。言語の実現形態と文体の混同は待遇表現と待遇法研究にあっても大きな誤謬へと導く。実は<話されたことば>そのものの研究は未だ端緒についたばかりだと言わねばならない。

実際の<話されたことば>は韓国語の言語研究において直視されていなかった。このことは、例えば<丁寧化のマーカ>である-yo/-iyoが、野間秀樹(2006)に至るまで、韓国語研究において正面から論じられたことがなかったという事実を見れば十分である。20歳代、30歳代、40歳代のソウル方言話者の、初対面と友人間の自由会話、28組、異なり人数56名の実際の<話されたことば>を調査すると、それぞれの会話の最初の5分間に現れた4,730の文のなかに、-yo/-iyoは何と301例が出現す

る。要するに-*yo*/*-iyo*なしでは会話が成り立たないほどの、驚くべき高頻度の形態なのである。もちろん、*hayyo*体をつくる-*yo*などはこれには含まれていない。こうした圧倒的な高頻度の形態を研究が直視できていないという実情であったから、当然のことながら、教育においても全くと言ってよいほど、丁寧化のマーカ-*yo*/*-iyo*は位置づけられていない。韓国と日本を通して、野間秀樹・金珍娥(2004,2007)、野間秀樹・村田寛・金珍娥(2004,2007;2008)、金珍娥(2005)などが正当に位置付けている、数少ない教材である。

言語のありようを見るならば、〈ソウル方言〉の概念、〈標準語〉の概念の確かな把握も重要である。多くの地方語のうち、ソウルことばにのみ現れる偏差のみをソウル方言だとする誤解も払拭しなければならない。ソウルで言語形成を見た話し手のことばは、すべからく〈ソウルことば〉、〈ソウル方言〉である。

社会のごく一部の階層、一部の集団や一部の話し手の関係内でのみ行われる言語は、〈社会方言〉として位置づけるべきものであり、韓国語ソウル方言の広い話し手において用いられる言語としての待遇法の体系からは除いて考えるべきである。こうした意味では、現在の〈標準語〉は、実体としては、放送などの一部の言語場でのみ用いられる、一種の社会方言である。

現在のソウル方言の〈話されたことば〉の実情としては、*hao*体や*haney*体は既にほとんど失われつつあり、*hayyo*体を中心とする敬意体と、*hay*体を中心とする非敬意体への二極分解が完成しつつあると言える。この点は노마히테키[野間秀樹](1996, 2002)で論じたとおりの推移を見せているといえよう。*hao*体や*haney*体といった文体は、目的意識的に作られた、小説の会話文やドラマの会話文など、〈擬似会話体〉の文体に多く用いられており、そうした〈擬似会話体〉の言語場と実際の日常における〈話されたことば〉の言語場とは、言語形式の上でもしばしば大きな違いが現れる。

実際の〈話されたことば〉から、友人間の対話に現れた用言の文末形式を調査すると、*hay*形が43.4%を占め、*hako*や*hayse*などといった接続形で終止する接続形終止が24.5%、*haci*形が14.2%、*hanta*形は5.8%であった。こうした結果からも非敬意体の基本的な文体は*hay*体だと言わねばならない。

非敬意体に現れる*hanta*形は、実は通常の平叙文ではなく、宣言や感嘆といっ

た,話し手の特別なmoodを有するムード形式である.しばしば独特のイントネーションを見せることでもこの点が確認できる.<話されたことば>に現れるhanta形は,<書かれたことば>に現れるhanta体とは,性質を異にするものなのである.

ことばは話し手が選択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原理は,「聞き手がこれこれの人物の場合にはこういう形式を用いる」といった解釈を許さない.待遇法とはどこまでも聞き手をそのように待遇していると聞き手にわからせるように,話し手が選択するものである.

この点,直接の対話者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言語場であって聞き手として参与しうると話し手が判断する<同席者>の存在に,待遇表現研究は注目せねばならない.同席者が存在する言語場の構造を<同席構造>と呼ぶ.

小説の会話文やドラマの会話文などの<擬似会話体>は,まさに小説の読み手やドラマの視聴者を<同席者>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で可能となる文体である.<擬似会話体>は<同席構造>が支えているのである.

本稿で論じたいいくつかの視角が様々な言語事実を照らし出してくれるのを見てもわかるように,<誰が誰に向かっていかなる場で語るのか>という問いから言語場を見据えることは,待遇表現と待遇法を考えるにあたって不可欠の要諦だと言わねばならない.

**Key words** : 대우표현, 대우법, speech level, 문체, 의사회화체, 서울방언, “해요”체, “해”체, “한다”체, 동석 구조, mood